

혈압 조절 후 신기능의 호전을 보였던 악성 고혈압 환자들의 임상 특징 분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수, 유혜영, 양철우, 김용수, 장윤식, 방병기

서 론: 악성 고혈압은 심한 고혈압에 의한 망막 출혈 혹은 유두 부종을 동반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2년내 80%가 사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내원시 신기능 부전을 동반한 악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대개 불량한 예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진단 초기에 신기능 부전을 보였으나 항 고혈압제를 이용한 적극적인 혈압 조절 후, 신기능의 호전을 보인 악성 고혈압 환자들의 임상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내원 당시 이완기 혈압이 120 mmHg 이상이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의 이상 증가 소견을 보이는 동시에 안과 검사상 고혈압성 망막증 3기 이상 소견을 보였던 1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내원 당시의 초기 검사실 소견과 적극적 혈압 조절 후의 검사실 소견을 비교 분석하고, 사용한 항 고혈압제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12명의 환자들의 남녀 비 차이는 없었으며, 대상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35.3세였다.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32.5개월이었고, 내원 당시 평균 혈압은 231.6 27.6/132.5 14.2 mmHg였으며, 안과 검사상 대상 환자 모두 Keith-Wagener and Barker grade III 이상의 중증 고혈압성 망막 병변을 보였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p < 0.001$), 이에 따라 혈청 creatinine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p = 0.001$). 신부전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신조직검사를 6예에서 실시하였는데, 고혈압성 신경화가 4예, IgA신증이 2예였으며, 모두 세동맥의 hyalin성 변화와 혈관 내피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질환의 중증도와의 연관성을 밝힐수는 없었다.

결 론: 대상 환자수가 적고, 후향성 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 결과와 같이 악성 고혈압 환자에서 신기능 부전을 동반한 경우 적극적인 혈압 조절에 의해 신기능의 호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